

갤럭시S,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지지직 소리와 함께 불꽃 ... 충전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갤럭시S의 배터리가 화재와 함께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강모(31)씨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6월26일 새벽 3-4시께 강씨가 방안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 침대에 올려둔 휴대전화 갤럭시S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이어 휴대전화 뒤 뚜껑이 열리면서 배터리가 떨어져 나왔으며, 휴대전화가 놓였던 침대 이불 부분이 일부 검게 그을렸다.

배터리는 크게 부풀려진 채 옆 부분이 터져 속이 보였고, 휴대전화 본체의 배터리 장착 부분도 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러나 전면 부분은 물론 휴대전화의 다른 부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강씨는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절반 정도 충전돼 있었고, 충전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0년 10월께 휴대전화를 구입했다”며 “평소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휴대전화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튀어 당황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당일 오후 신고를 접수하고 강씨로부터 해당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였으며, “휴대전화 본체나 전지 내부 요인에 의한 문제점과 이상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X레이 및 CT 촬영 분석결과 배터리 외관 상부의 음극 탭 부위에 사고 이전에 발생한 흠집(찌그러짐)이 있었다”며 “그러나 흠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터리를 해체해 분석한 결과 찌그러진 부위에서 상부 음극기재와 배터리 케이스 안쪽이 닿으면서 합선이 발생해 발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내부 서비스규정에 따라서 강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8>